내인 수유잇다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통권 32호

2026년도 10월 소식지



수다, 은빛의 일상을 다정하고 묵묵하게 지켜주신 일곱 분의 가치동행 선생님들

이달의 조합원 인터뷰 - 최미영 조합원
주요 소식 # 요모조모 소식
마을 나눔과 연대
눈여겨 볼 소식
조합비/후원금/생일축하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62
http://suyucoop.com
suyucoop@gmail.com
사무국 02-980-0715
수유은빛마당 02-982-0710

이달의 조합원 최미영 조합원



짱짱하고 쌩쌩한 기운으로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한껏 끌어올리는 능력자!

사람들이 별칭으로 '산'을 많이 써서
" 그럼 나는 강까지 아우르는 강산으로 해야겠다!"고 정한,
생각, 말, 일, 관계가 시원시원한 사람!

최근 마을 사람, 활동, 마음을 연결한
'강북 캠퍼스 마을 축제 함께하작 피크닉' 행사를 총괄해
분주한 시간들을 보낸터라 피곤이 가득일 것 같은데도
여전히 창창한 에너지로 자신을 아랫 말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이 즐겁다"
" 타오르 듯 일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차가운 계절의 힘 앞에 주춤하고 움츠려 들려는 찰나
우리에게 이때가 더 사람 가까이~ 함께 즐겁게 만나기 좋은 때라고 알려주는 듯 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별칭이 강산인데, 이제는 본명보다 강산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어요.
저는 강북구에서 태어나 쭉~ 자랐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강북구에서 살고 있어요.
강북구가 강북구가 되기 전부터 살았으니 정말 오래된 주민인 셈이죠.
아이를 낳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꿈꾸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강북 여성주의 문' 이라는 지역 단체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여러 마을단체와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시작한 마을 활동이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우리 조합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수유수제맥주 프로젝트 협동조합이 인연의 시작이예요.
2017~2018년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함께 수제맥주를 만드는 모임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봤어요.
평소 맥주를 좋아하기도 해서 참여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저를 제외한 참여자 네 명이
모두 아빠들이더라고요. ㅎㅎ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수제맥주 모임이 몇 년 동안
이어졌고, 현재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유1동에서 활동하는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우리 조합과도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앞선 얘기하신 대로 우리 조합, 수유수제맥주 외에도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했고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여성주의 문' 활동을 시작한 건 개인적인 고민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로컬랩 사업에서는 주민조직을 만드는 일을 했고, 인수동 생활상권 육성사업에서는 장미원시장 주변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했어요. 특히 상인조직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함께 모이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두 개의 상인회를 사업 기간 동안 만들었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상인들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이 컸어요.
저는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는 일이 잘 맞았어요. 행사가 있는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최근 '마을 캠퍼스 축제 함께 하작 피크닉' 총괄을 맡으셨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 축제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주민들이 단순히 하루 부스를 운영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축제를 만들어 갔으면 했어요.
강북구의 40여 개 단체가 참여했고, 환경·공예·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특히 체험존에서는 참여 단체들이 축제 전에 모여 회의하고, 스탬프 이벤트를 기획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 준비했어요.
이번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참 좋아'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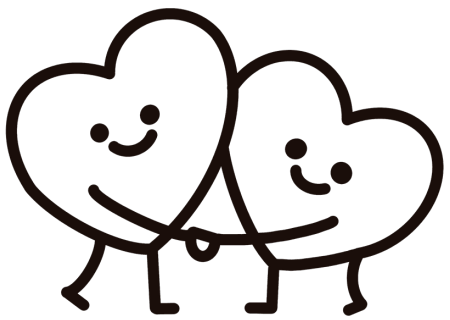
사실 왜 마을활동을 계속하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학생회 활동을 했던 경험도 있고,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함께 의논하고 운영하는 경험도 쌓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와 산책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마을에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활동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요. 특히 축제나 행사처럼 준비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조합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조합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활동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있고, 잘 해보고 싶고, 책임감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일을 감당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마을에서 여러 단체와 활동들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수유수제맥주를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도 조합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오래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찬 에너지와 함께
다정하고 깊은 애정으로 조합과
함께 하는 최미영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터뷰 하는 내내
후끈 따뜻했어요~

조합 주요 소식 '우리동네 서로돌봄학교' 진행









나와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잘 나이 들고, 이웃과 정답게 어울리며,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네.
그런 동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서로돌봄학교를 열어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배워보는 시간을 (재)바보의나눔 지원으로
10/12-11/2(월) 저녁 7-9시에 4회를 진행했습니다.

피곤이 잔뜩 내려 앉은 시간인데도
많은 조합원님과 주민들이 반짝반짝한 학생심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특히 노원에서 오신 어르신 두 분의 적극적이고 환한
에너지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시고,
우리 동네 수유1동에서 서로 배우고 돌보는 관계를
기분좋게 상상하고 희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선배 시민, 셀프 케어, 느슨한 돌봄, 우정 공동체 등
이번 돌봄학교에서 새롭게 알게 되고 소중하게
가져갈 배움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함께 책읽고 돌봄 활동을 기획해보는 모임을 꾸렸어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조합 사무국 (02-980-0715)으로
연락주세요.

요모조모 조합 소식



10/1 일경험 청년 지원사업 참여

조합에 파릇파릇한 기운이 가득~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청년 지원사업에 우리 조합이 선정되어
김효경, 신소희, 이효은 세 분 청년이
수다, 은빛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덕분에 조합이 더 싱글생글해질 것 같아요^^



10/ 21 가치동행일자리 선생님들 활동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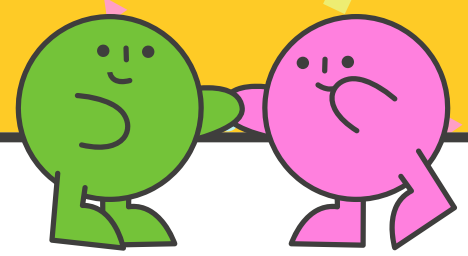
4월부터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수다, 은빛 곳곳에서 열일해주신
선생님 일곱 분이 10월로 활동이 마무리 되었어요.
감사한 마음, 아쉬운 마음 전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며 소감 나누었어요.
올 한해도 선생님들 덕분에 참말 무사했습니다.



10/28 화천사과 생산지 방문

조합에서 3년째 판매하고 있는!
'깨끗한 공기와 신선한 바람이 키운 화천 사과'
생산지에 운영진, 조합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과가 생산되고 있는 걸
직접 보니 더 안심되고 믿음이 커졌어요!
정관섭 생산자님! 감사합니다!

나눔과 연대 소식



10/22 한옥마을사업 반대집회 연대

인수동 위, 맨발 걷기로 최근 더욱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근처 숲에 한옥타운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소식에 많은 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이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합도 반대 현수막 걸기에 동참하고
반대집회에 여러 이사님들과 조합원이 참여했어요.



10/24 강북캠퍼스마을축제 함께하작 피크닉 참여

환경·공예·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의 가을 산책을
살랑살랑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우리 조합에서도 수다, 은빛을 홍보하고
여러 상품과 음식들을 판매하느라
많은 운영진들이 애를 써주셨네요.



10/25 강북직접정치주민대회 참여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대회는
우리 조합에 더욱 특별하고 중요했어요.
10개 주민요구안 중 우리 조합이 희망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치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3위(1492표)로 많은 주민들의 표를 받았어요.
대회 준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11월 눈여겨 볼 소식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김장 김치 판매

11월 21일 (토) 오후 2시이후
11월 26일 (목) 오후 3시 이후
빨래골마을사랑방 수다 1층 수다키친



<김장김치 완제품>

1. 배추김치 5kg 50,000원(봉지에 포장)
2. 배추김치 10kg 100,000원
   - 김치통 제공+석박지 무 1kg 서비스
   - 김치통을 식당에 미리 가져다 놓을 경우 3,000원 할인
   - 통은 12리터 이상 크기로 가져오세요.
3. 석박지 2.5kg 20,000원

• 사전 주문 필수/수령날짜 선택

입금계좌: 신협 131-022-065509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김장 김치 판매

🥬올겨울 김장 걱정 덜어드립니다!🥬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아삭하고 맛있는 김장김치!

김장을 직접 담그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료 준비도 번거로우셨죠?

우리 조합에서 맛깔나고 정성 가득한
김장김치 완제품과 김장키트를 판매하고,
공동체김장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김장 걱정 내려놓고,
조합에서 준비한 김장김치로
든든한 겨울 밥상을 준비해 보세요. 😊

*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문의 : 02-980-0715 / 010-4321-7015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10월 조합비 납부

강현애 고인석 권은자 길현실 김미애 김성훈 김연자 김유진
김일웅 김지애 김차리 김학준 김혜경 김홍녀 남선진 민병조
박경희 박수진 박영진 박종귀 박종우 박진우 서은영 신영미
신지현 우성구 우은정 윤정현 이경숙 이경희 이새롬 이영진
인정심 임수경 장현주 정세현 정순희 정정례 정 훈
조유림 조정림 차재혁 최미영 최민규 최진숙 한명탁 호은성
수유수제맥주프로젝트협동조합 자원순환환장사회적협동조합



10월 후원자

권복희 김건식 김옥성 김진숙 오정화
우은정 윤창범 정용덕 정 훈
수다탁구교실 은빛기타교실

10월 생일 조합원

우성구 (10/3) 민병조(10/15)
김홍녀 (10/15) 박상준(10/17)

조합원 가입이나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2-980-0715)
후원계좌: 신협 131-021-495303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